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추상미술의 이해를 위한

현장 적용 연구

-모듬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고등학교 미술

교수학습 모형-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희 수

추상미술의 이해를 위한

현장 적용 연구

-모듬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고등학교 미술

교수학습 모형-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희 수

# 인 준 서

박희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 문 개 요

오늘날 미술교육의 동향은 창작 및 표현활동뿐만 아니라 감상과 비평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미술교육이 전문 작가 양성이 아니라 미적 안목을 가진 문화인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적 대상을 보고 미적 가치를 느끼며,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미술과 친숙해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의 다양한 영역 중 추상미술에 대해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을 길러 주기 위한 효과적 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연구 및 제 7차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과서 분석, 수업을 통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추상적인 표현 영역이 늘어난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표현에 대한 자신감 및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상표현의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으로서 작품 감상 자료와 추상화 제작과정을 ICT 자료로 제시하고, 모둠 프로젝트 학습에 의한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1 추상미술의 개념과 원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추상화의 개념 및 원리를 알아 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상미술에 영향을 미친 미술 사조 및 경향의 검토를 통하여 구상과 추상 작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자연물을 수직, 수평선과 3원색, 무채색으로 변형시킨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2 제 7차 교육과정과 추상미술에서는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조형 요소와 원리를 추상에 적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추상표현에 대한 의욕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상 표현의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Ⅲ-1 모듈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모듈 프로젝트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변형시키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Ⅲ-2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현대미술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감상활동을 전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미술작품 감상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표현활동을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모듈별로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 발상과 토론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쉽게 추상 표현에 접할 수 있도록 중심 조형요소인 점, 선, 면, 색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추상미술의 참고 작품 감상은 ICT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조형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추상 표현 능력을 신장시켰으며, 이로써 확산적 사고를 통한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현대미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의 표현으로 추상화에 대한 안목과 감상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모듈 프로젝트 수업은 사회성 발달과 표현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미술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길러주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의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지도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의 교사들에게 추상표현에 대한 지도방법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1. 추상 미술의 개념과 원리.....	4
1) 추상미술의 개념.....	4
2) 추상미술의 흐름.....	5
3) 추상 회화에서의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13
2. 제 7차 교육과정과 추상미술.....	19
1) 제 7차 교육과정의 분석.....	19
2) 제 7차 교육과정 미술과 교수-학습의 방향.....	25
3) 추상 미술의 교수-학습 원리.....	29
III. 추상미술 모둠 프로젝트	
1. 모둠 프로젝트 학습.....	32
1) 모둠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	32
2) 모둠 프로젝트 학습의 필요성.....	33
3) 모둠 프로젝트 학습의 단계.....	33
2. 교수-학습 프로그램.....	35
1) 미술과 교육목표.....	36
2) 단원명 [6. 변형시키는 즐거움].....	36
3) 단원 설정의 이유.....	36

4) 단원의 목표.....	37
5) 단원의 지도 계획.....	38
6) 본시 학습 지도 계획.....	39
7) 추상과 상상의 세계 지도.....	39
8) 본시 학습 지도안.....	39
9) 형성평가.....	45
10) 학생작품 및 평가.....	45
IV.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 표 목 차

<표 1> 고등학교 (10학년) 내용 범위와 수준.....	20
<표 2> 변형시키는 즐거움 지도 계획.....	38
<표 3> 1/3 차시 추상과 상상의 세계 학습 지도안.....	40
<표 4> 학생작품 평가.....	46

## PPT 도 환 목 록

몬드리안, <그림4 : 붉은 나무> 1908,

<그림5 : 회색 나무> 1912,

<그림6 : 꽃핀 사과 나무> 1912,

<그림7 : 구성 10번> 1912, 공공미술관, 헤이그,

캐틀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클릭,서양미술사 (서울 : 예경, 2000), p.261

서계섭, <그림10 : 난>, 사군자 (서울: 형설출판사, 1997), p.27

몬드리안, <그림12 : 검정과 흰색의 구성 No.10 : 부두와 해양>, 1915,

- 캔버스에 유채, 85×108cm, 오테를로, 크윌러-필러 미술관,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서울 : 한길아트, 1999), p.82
- 몬드리안, <그림 13 :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 1922,  
캔버스에 유채, 54×53.5cm, 몬테 카를로, 개인소장,  
김현화, 전게서, p.90
- 몬드리안, <그림 14 : 빨강, 검정, 파랑과 노랑의 마름모꼴 구성>, 1925,  
캔버스에 유채, 77×77cm, 개인 소장,  
김현화, 전게서, p.97
- 몬드리안, <그림 15 : 흰색과 노랑의 구성 NO.3 : 빨강, 노랑, 파랑의 구  
성>, 1935~42, 캔버스에 유채, 101×51cm,  
뉴욕, 크리스티 미술 경매상, 김현화, 전게서, p.99
- 몬드리안, <그림 16 :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1942~43,  
캔버스에 유채, 127×127cm, 뉴욕 현대 미술관  
김현화, 전게서, p.102
- 몬드리안, <그림 17 : 빅토리 부기우기>, 1942~44,  
캔버스에 유채와 종이, 127×127cm, 개인소장  
김현화, 전게서, p.103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는 매일 미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술을 활용하면서, 미술을 누리면서, 미술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옷에도, 책에도, 디지털 영상에도 미술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다시금 새롭게 생성된다. 1950년대 이후, 미술의 조형적 원리와 요소 등에 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해 중심 미술교육 사조가 확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서는 표현기능의 전수에 중점을 주는 전통적 미술 교육관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각정보와 미술 이미지는 대단히 친밀한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미술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미술은 확산적 사고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미술을 누리기 위해서 미술에 대해 알고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을 이해하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미적 감각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미술교육에서는 추상미술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감상과 비평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미술교육은 전문 작가 양성이 아니라 미적 안목을 가진 문화인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며, 미적 대상을

보고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생활 속에서 미술과 친해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기본적인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미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형 요소와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미적 체험이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추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감상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상표현의 체계적 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데 소홀했던 종래의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교수방법의 부재를 지적하고, 추상미술의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추상미술의 감상 자료를 개발하여 추상미술의 흥미를 유발한다.
- 둘째, 모둠 프로젝트 학습을 개발 적용하여, 추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 셋째,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생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비평 능력을 기른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미술의 개념과 흐름을 문헌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및 시공사 교과서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셋째, 모둠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넷째, 조형 요소와 원리를 표현하는 추상미술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모둠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은 고등학교 미술교과 감상 및 표현에서 시공사 교과서 [6.변형시키는 즐거움] 단원을 제시하였다.

나. 본 연구의 현장 적용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모둠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추상미술의 개념과 원리

#### 1) 추상미술의 개념

추상미술(抽象美術, abstract art. 영)은 비대상미술(比對象美術), 비구상 미술, 비재현적 미술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구체미술<sup>1)</sup>이라고도 불린다. 사실주의 시대에는 어떤 상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목적이었다면 추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물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의 구체적 대상을 거의 재현하지 않고, 색, 선, 형 등의 추상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미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주류의 하나를 이룬다.<sup>2)</sup>

추상미술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추상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추상(abstract)’이라는 의미는 라틴어 ab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대상의 전 구성요소 가운데서 어떤 것을 잘라내고, 밖으로 끌어내고, 또는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어떤 대상을 그 전체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하며 이 과정의 작업을 추상한다는 말로 표현한다.<sup>3)</sup> 추상의 어원적 의미는 ‘자연

1) **구체미술** 具體美術 Art Concret(프) Concrete Art(영). 네덜란드 화가인 반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가 1930년에 추상미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 그의 정의에 따르면 구체미술은 자연에 뿌리를 두지 않은 대신, 미술 자체의 형식적 속성과 기하학에 바탕을 둔 미술을 의미한다. 월간미술연구,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월간미술, 1999), p.43

2) 월간미술연구, 상계서, p.446

3)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 일지사, 1994), p.46

으로부터 이끌어내다’, ‘추출하다’이다. 그러나 언어적 의미만을 가지고 추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삼각형, 사각형, 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이 구상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연을 묘사하지 않은 미술의 양식을 지칭하기 위해 ‘추상’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실적 묘사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의 그림에서 기하학적 형태, 나선형의 무늬, 직선, 곡선들의 표현을 추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적인 형태들이 사라지고,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추상화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4)</sup>

추상화는 비대상 미술 혹은 비구상 미술, 비묘사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 사물의 사실적인 형태들은 사라지고 형태를 짐작할 수 없는 점, 선, 면, 색채만이 남아 있는 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2) 추상미술의 흐름

20세기 초부터 유럽 미술의 경험을 급진적으로 표현할 새로운 화가와 조각가들은, 르네상스 이래 그 어떤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세계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표현할 급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sup>5)</sup> 20세기 이후 화가들은 자연을 그린 그림은 마치 사실적인 실제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점차 화가들을 자연의 형태를 빌어오던 것을 작가의 내부에서 찾게 되었다.

한편, 회화와 조각이 설명적인 모방에 의해서, 혹은 자연현상의 재현을 통해서 세계의 실재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많은 미술가들에게 구상적인 재현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경험의 실제 모습을,

---

4)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서울 : 한길아트, 1999), p.9

5) 벨구딩, 정무정 역, 「추상미술」 (서울 : 열화당, 2003), p.6

그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 줄 정도로 강렬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제약으로 보였다.<sup>6)</sup>

자연의 사실적인 형태들이 사라지고,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추상화의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면 추상은 선사시대와 고대 이슬람의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꽃, 새, 동물 등 간략하게 기호화시킨 이슬람 미술의 아라베스크 선은 훌륭한 추상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상미술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의 부족 또는 다른 이유로 변형된 형태들도 추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자연에서 추출되어 기호화된 형태라고 해서 전부 추상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sup>7)</sup>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1910년 발표한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에서 추상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저서에 나타나는 그의 이론은 미술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당시 미술가들의 일부 실험방향에 중대한 지침이 되었다.

어느 누가 가장 먼저 추상에 도달했다는 연대기적인 기록보다는 같은 시기,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예술가들의 정신 이념에 의해 추상미술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조형적 언어가 되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예술 작품은 의식의 표면에서 반영된다.<sup>8)</sup> 칸딘스키와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과 조형 이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추상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또 작가들은 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칸딘스키의 발견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다. 칸딘스키는 외출에서 돌아와 자신의 작업실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하였다. 그림을 보고 감동을 느

---

6) 펠구딩, 정무정 역, 전계서, pp.6~7

7) 김현화, 전계서, p.9

8)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서울 : 열화당, 2000), p.11

끼며 누구의 그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서 보니까 거꾸로 세워진 자신의 그림이었다. 그림이 거꾸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는 전혀 상관 없는 선, 색채, 형태의 조화와 구성만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우연한 발견에 의해 20세기 미술의 대변혁이 이루어졌다.

칸딘스키는 혼란과 무질서와 속된 평판에 대한 우악스런 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신적인 삼각형은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움직여 전진과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남과는 다른 차이, 오늘날에 우리가 개성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대상에서 순수한 물질성만을 볼 뿐만 아니라, 사실주의 시대의 대상보다는 그다지 구상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면까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에 비해서 이 사실주의 시대에는 어떤 ‘상상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목적이었다. 흔히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이라는 말도 있고, 또 ‘다소 간’ 물질적인 것이라는 중간적 상태의 말도 있다. 모든 것은 물질인가. 모든 것은 정신인가.<sup>9)</sup>

칸딘스키는 자연에 속한 예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적 요소, 인간의 내면세계를 화면에 조형적 요소를 통해 생명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자연에서 받은 직접적인 인상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무의식적이고 자동 발생적으로 표출하는 즉흥적인 과정이다. 칸딘스키의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몬드리안의 추상화 과정인 대상의 분석, 해체, 단순화 과정과는 다르다. 그는 형태와 색이 지니고 있는 감동적인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이 갖는 강렬한 창조적 의지를 표현했다.

독일 표현주의<sup>10)</sup>자들이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의 모더니

9)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 열화당, 2000), p.30

10) 표현주의 表現主義 Expressionismus. 미술사와 미술비평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미술의 목적을 자연의 재현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며, 르네상스 이해 유럽 미술의 전통적 규

즘을 이끌어 나가며 미술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 힘썼던 인물이 바로 피에트 몬드리안이다.

몬드리안의 스타일은 선과 색 면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전쟁 중에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조화와 질서를 예술 속에서 창조하고자 직선을 사용하고 서로 균형을 이룬다. 몬드리안에게 수직선은 생기를, 수평선은 평온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수직과 수평의 만남은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등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원론적 요소들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원론적인 사유작용은 신지학<sup>11)</sup>에서 유래된 것으로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sup>12)</sup> 회화의 절대적 형태요소가 된다.<sup>13)</sup> 그의 그림에서 몬드리안은 검은 선만으로 직사각형을 형성한 금욕적인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오로지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계산하여 배치하면서 몬드리안은 ‘불평등한 균형, 그러나 평온한 대칭’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비록 그의 그림들이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각각은 정확하고 완전히 서로 다르게 계산되어 배치된 그림들이다.

데 스틸(De Stijl)<sup>14)</sup> 운동이 미술사에 기여한 점은 자연 속의 어떠한 대상과도

---

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 세기 미술 운동 중의 하나. 월간미술읽음, 전개서, p.500

11) **신지학** 神智學 theosophy. 보통의 신앙이나 추론(推論)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오한 본질이나 행위에 관한 지식을, 신비적(神祕的)인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알게 되는 철학적·종교적 지혜 및 지식. <http://100.naver.com/100.php?id=102325>

12) **신조형주의** 新造形主義 Neo-Plasticism(영).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의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 양식과 그의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예술에 관한 철학적 사상. 그는 예술은 ‘탈자연화(denaturalized)’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미술작품에서 자연의 재현적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추상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간미술읽음, 전개서, p.283

13) 김현화, 전개서, p.84

14) **데 스틸** De Stijl(네). 양식(the style). 반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 몬드리안(Piet Mondrian), 화가 겸 조각가 반통겔루(Georges Vantongerloo), 시인 코크(Antonie Kok), 영화감독 리히터(Hans Richer), 건축가 우드(J.J.P.Oud) 및 리에트벨트(Gerrit Rietveld) 등에 의해 1917년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기하학적 추상미술 그룹.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옹호하고 새로운 조형예술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회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각, 건축, 디자인 등 각 분야에 걸쳐 신조형주의의 원리를 넓히려 했다. 1920년경에는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와 상호 협력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 디자인, 상업미술 등에 강력

연관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추상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몬드리안은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소거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술이 될 수 있으면 수학적인 것이 되기를 바랐고, 잘 구성된 세계의 청사진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수평과 수직이 직각으로 만나서 영구적인 균형을 얻고 거기에서 완전한 미를 느낀다. 자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다. 단지 정신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질적인 외형을 거부할 뿐이다.

몬드리안은 자연의 형태를 점차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자신의 특징적인 스타일에 도달하였다. 나무를 그린 연작을 보면 재현적인 회화에서 추상적인 회화로 전이해 가는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큐비즘을 통해 회화가 자연을 재현하는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몬드리안은 모든 형태를 요약, 응축하여 보편적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조형성의 원리를 구축하였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소재로 초기 작품 [그림4 : 붉은 나무]에서는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모습과 두터운 밑둥으로 나무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작품 [그림5 : 회색 나무]에 의하면 선 그리기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주제가 나무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후기 작품 [그림7 : 구성 10번]을 보면 나무를 거미줄 같은 선으로 분해시켜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림의 균형을 맞추는데 선과 선사이의 공간이 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몬드리안은 세 가지 원색과 무채색을 이용해서 평면 안의 평면적 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색채 실험을 하였다. 특히 그는 검은 색을 수평선과 수직선의 직각의 만남으로 인해 생긴 면들을 분리시키는 큰 띠로 사용하였으며 흰색은 배경과 형태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로 채택하였다.

추상의 형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가장 먼저 창조되었는지 정확히 단정지을 수 없지만 추상미술이 인상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

---

한 영향을 미쳤다. 월간미술읽음, 전게서, pp.87~88

다. 회화에서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추상화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인상주의의 특징인 대상의 고유한 색채에 대한 부정, 대상 파악의 방법으로서 빛의 반사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며 형을 이루는 윤곽선이 없는 표현 때문이다.

추상이란, 자연으로부터 독립하고픈 인간의 욕구가 반영되었으나,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세잔느(Paul Cezanne)는 자연에서 여러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카소(Pablo Picasso)와 브라크(George Braque)가 대상을 해체하고 분할하고 재구성하는데 만족하였다면, 큐비즘을 거쳐 신조형주의 회화에 도달한 몬드리안은 자연의 핵심을 추출하여 기하학적인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자연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미술의 원리로 응용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데 스틸의 보다 폭넓은 조형운동, 엄격한 조형적 이념의 형식과 실천, 자연에서 벗어나려는 강력한 욕구, 기하학적인 것의 신지학의 구체적인 실현 등 이러한 추상작용은 본질적으로 이성애 속하는 지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현대 미술은 시대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용어들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큐비즘은 1908년 브라크 전시 때 풍경화 작품을 보고 보셀(Louis Vauxcelles)이 야유적으로 ‘입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것이고, ‘절대주의<sup>16)</sup>’는 1915년 카지미르 말레비치(Kasimir

---

15) 오광수, 전계서, p.94

16) **절대주의** 絶對主義 Supermatisme(프). 러시아의 화가 말레비치에 의해 시작된 기하학적 추상의 한 흐름. 원래는 입체주의 미학에서 파생한 것이다.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보다 훨씬 앞서 기하학적 추상의 한 국면을 전제한 것으로서 의미가 깊다. 비대상적(非對象的)·비(非)재현적인 순수한 감각 내지 지각을 ‘지상(至上)’의 것, 다시 말하면 회화예술에 있어서의 궁극적(究極的)·최후적, 혹은 결정적·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월간미술연음, 전계

Malevich)가 자신의 추상작품 및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다른 미술가들의 작품을 일컫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였다. 데 스틸은 뜻을 같이 한 미술가들, 건축가들, 타이포그래퍼<sup>17)</sup>들의 생각을 고무하기 위해 1917년 창간된 잡지의 제목이다. ‘데 스틸’운동에 참여했던 화가와 건축가들은 순수한 기하학에 입각한 추상미술을 추구해 나갔다.

제 1차 세계대전의 혼란기 동안 그는 “자연이란 불쾌하고 무질서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몬드리안은 이 지지분한 ‘자연의’ 미술을 버리고 ‘신조형주의’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해 나가게 되었다. 그 목표는 실제의 자연계에는 결여되어 있는 정확하고 기계적인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었다.<sup>18)</sup> 1930년대 초반, 파리를 근거지로 둔 어느 국제적 그룹은 『추상-창조 (Abstraction-Creation)』라는 연감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몇몇 ‘구성주의<sup>19)</sup>’ 미술가들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추상적’이라는 형용사를 그 반의어인 ‘구체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비평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는 수많은 회화적 터치를 통해 창조된 회화를 위해 ‘타시슴 (tachisme)<sup>20)</sup>’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sup>21)</sup>과 추상

서 p.399 <http://100.naver.com/100.php?id=98241>

17)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영). 활자서체의 배열을 말하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인 기호를 중심으로 한 이차원적 표현을 지칭한다. 또한 손으로 쓰는 문자에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수법에 의한 서체를 말하기도 한다. 월간미술취음, 전게서 p.469

18)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0), p.260

19) **구성주의** 構成主義 constructivism. 러시아 혁명을 전후하여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일어나, 서유럽으로 발전해 나간 전위적인 추상예술 운동. 일체의 재현 묘사적 요소를 거부하고, 순수 형태의 구성을 취지로 하며, 따라서 회화나 조각의 영역에서는 기하학적 추상의 방향을 취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20853>

20) **타슈** tache(프). 반점, 얼룩 등의 의미가 있으며, 미술 용어로는 색면에 해당된다.

**타시슴** Tachisme (프). 타슈에서 유래한말. 야수주의의 표현주의적 요소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가 추상표현주의적인 경향에 대하여 조소적인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월간미술취음, 전게서 p.469

21) **액션 페인팅** action painting(영). 제 2차 세계대전 후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추상회화의 한 경향으로 대표적 작가는 폴록(Jackson Pollock)인데, 그는 캔버스에 점착성(粘着性) 안료를 떨어뜨리거나 뿌리는 따위의 즉흥적인 행동으로 제작하여, 그린다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곧 묘사된 결과보다도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에서 예술적

표현주의는 매우 다른 양식과 의도를 가진 미국 화가들의 작품에 자유롭게 적용된 용어이다. 대부분의 추상미술의 역사는 이러한 양식적 발전과 분화,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용어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했다.<sup>22)</sup>

사회의 변화는 예술의 변화를 초래한다. 추상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로 다른 여러 시대와 여러 민족에 걸쳐 미술의 양식이 추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하고, 작가는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술사를 분석하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조형 요소나 구조를 물질적인 면을, 물질적인 형태가 지닌 사실적인 주변세계로부터 분리시켜 분석하는 일이다. 예술작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석적인 연구에 관해 주의해야 할 것은, 회화가 다른 모든 예술들 가운데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축은 그 예술 본질상 실용적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편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추상 작품들이 있다.<sup>23)</sup>

추상미술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닥재, 벽재, 타일 또는 도자기의 문양, 몬드리안의 회화를 응용하여 디자인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각종 문양 등 추상미술의 응용과 영향은 실로 다양하고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이는 산업미술의 모체가 되는 바우하우스<sup>24)</sup>에 영향을 미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추상적 이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25)</sup>

추상미술이 시작된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은 어떤 것에서 추출하고, 말레비치의 기하학 사각형은 현실과

---

가치를 찾으려는 것이다. 월간미술읽음, 전게서 p.313

22) 멜구딩, 전게서, p.10

23)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전게서, p.12

24) **바우하우스** Bauhaus(독). 1919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하여 설립하였다. '바우하우스(Bauhaus)'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Hausbau)를 도치시킨 것이다. 주된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이었다. <http://100.naver.com/100.php?id=68846>

25) 나현정, 「추상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03), p.17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추상이다. 자연의 형상에서 공통된 질서의 형을 이끌어 낸다는 의미로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추상화도 고갱(Paul Gauguin)이나 마티스(Henri Matisse), 세잔느 등에 의해서 자연의 대상들이 단순해지고,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서 주도된 큐비즘에서 더욱더 선과 색으로 분리되고, 몬드리안에 이르러서는 선과 색만이 남게 된 것이다.

### 3) 추상회화에서의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미술작품은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유용성과 관련 있는 것이나, 또는 보기만 하는 작품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표현 요소들을 의도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구성은 모든 미술작품을 창작하는데 공통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재료들이 형태를 이룰 때 하나하나의 조형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표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구성의 원칙을 조형의 원리라고 한다. 조형의 원리는 개인의 시각적 인식의 습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느끼는 사물의 크기, 명도, 색채, 형상, 질감, 속도, 깊이 등에 대한 지각은 대체로 동일하다. 조형의 원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과 지각의 유사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처럼 시각적 감성의 표현을 위해서는 조형의 요소와 그 구성적 원리의 조형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 (1) 조형의 요소

시각적 표현의 기본 요소인 점, 선, 색, 빛, 형태, 공간, 질감 등은 시각 예술의 기본 요소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조형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점 (point)

사물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고, 형태를 생성시키는 가장 단순한 요소이다. 모든 조형 요소들의 시작으로부터 완성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점이 개입되며, 추상적·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점의 기본 형태를 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어느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점을 다루는 주체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 동양회화에서의 점의 의미는 정신을 담고 있으며, 서양회화에서의 점의 의미는 물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점은 방향성이 있다. 공간을 나누는 효과를 지니고 시각각의 효과를 만든다. 흑백사진처럼 명암의 효과를 만든다.

점이 놓인 배경의 크기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보일수도 있고 각 재료의 질감과 색의 차이로 인한 점의 시각각적, 촉각적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떤 정신으로 점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은 재료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감성과 표현과 상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Positive : 그리기, 입히기, 붙이기

\* Negative : 긁기, 파내기, 흙집내기, 구멍뚫기

\* 병렬 : 크기, 위치, 색채의 변화

\* 중첩 : 크기, 위치, 색채의 차이 - 공간감 형성

\* 광학효과 (Optical) : 크기와 배열과 색채 활용까지

\* 명암을 상징할 경우 : 점의 밀집도에 의한 시각적 차이를 활용

- 사진의 예
- 빛의 음영효과를 직접 활용하기

\*기타

기하학에서의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따라서 개념상 이것은 비물질적인 본질이라고 정의되어야겠다.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 점은 제로와 같다. 그러나 이 제로 속에는 ‘인간적인’ 서로 상이한 속성들이 숨겨져 있다. 기하학에서의 점은 최고의 간결함, 다시 말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최소한의 존재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우리는 ‘일상적인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인상주의의 모네(Claude Monet)는 빛의 변화를 섬세한 붓터치로 표현함으로 추상미술에 영향을 주고, 신인상주의의 쇠라(Georges Seurat)는 색을 과학적, 광학적으로 분석하였고, 미래주의자 보치오니(Umberto Boccioni)는 움직이는 것의 미래적 환희를 역동성 있게 표현하였다. 추상표현주의에서의 점은 옵아트(Optical Art)<sup>27)</sup>의 시각적 효과를 팝아트(Pop Art)<sup>28)</sup>에서의 점은 인쇄망점을 부각하여 나타냈다.

26)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전개서, p.17

27) **옵티컬아트** Optical Art(영).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張力)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미술. <http://100.naver.com/100.php?id=716742>

28) **팝아트** Pop Art(영).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 문화적 시각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미술의 한 경향을 말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212058>

## ② 선 (line)

선은 본질적으로 보면 점의 연장으로부터 비롯되면서 일면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점이 그 기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만으로서는 완전한 표현 단위가 되지 못하며 선은 보다 넓은 감정과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미술에서의 선은 기하학에서의 선과 구별된다.

미술에서의 선은 점과 점을 잇는 공간 측정의 수단을 의미한다. 표현적인 하나의 선은 방향, 방위, 운동감 등의 에너지를 갖는다. 선의 길이, 시작과 끝,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며, 분리, 꼬임, 평행, 교차 등 서로 관계를 갖기도 하고, 시각적 움직임, 패턴과 질서, 암시, 내면 의식 등을 인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의 종류로서 지그재그 무늬의 양말, 선의 방향으로서의 방의 벽지의 넓고 두툼한 선, 선의 길이로서 종이의 짧은 선, 선의 관계로서의 교차되어 칠해진 페인트 등은 모두 선에 대한 미술적 의미로서의 표현을 의미한다.

선은 한 점에서 한 점 사이의 점의 연속이다. 동양의 그림은 선의 예술이다. 서양의 그림이 주로 면과 색을 강조한다면, 동양의 그림은 선에 가해지는 압력의 힘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선을 강조하며 선의 강함과 약함, 선의 흐림과 진함, 선의 굵기 등에 의해 표현을 중시한다. 서양의 그림은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색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다.

선의 종류에는 직선, 곡선, 지그재그선, 굵은 선, 가는 선, 실선, 점선 등이 있다. 선은 2차원의 평면과 3차원의 부피의 외곽이나 형, 추상적인 형과 구상적인 형을 묘사한다. 또 몬드리안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을 나눈다. 선은 마음 혹은 정신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그린 선들은 직선이 많고, 진하게 그려지고, 날카롭고, 자주 끊

어지는 선들이 많다.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그린 아래쪽의 선들은 곡선이 많고, 연하게 그려지며,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많다. 이처럼 선으로 행복, 슬픔, 자연스러움, 화려함, 담대함, 날카로움 등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사고와 개념을 표현할 수도 있다.

### ③ 색 (color)

색은 미적 요소 중 감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요소보다는 좀 더 생명감이 있고, 본능적이다. 여러 방향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색은 색조와 명도 그리고 채도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한다. 색의 대비와 배색은 색과 색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균형과 조화의 관계를 말하며 색의 감정이란 색으로부터 생기는 감정이나 자극에서 파생되는 연상 등을 말한다.

칸딘스키가 가장 강조한 요소는 색채였다. 그는 색채란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이면서 심리적 효과를 주며, 시각뿐만 아니라 음향처럼 청각마저도 일깨워 준다고 하였다.<sup>29)</sup>

추상화는 대상을 생활 주변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혹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대, 축소, 절단, 소멸 등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된 그림을 말한다.

추상미술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표현해야 할 지 몰라 곤란 혼란에 빠지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 기호나 도형, 점과 선, 색면 같은 단순화된 형태만 보고 추상화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미술은 구상과 비구상이 혼합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

29) 김현화, 전제서, p.41

어쩌면 그 흐름의 주류는 추상 표현으로 더 비중 있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학생들에게서 자연의 사물을 떠나 순수한 추상 표현을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지도한다는 것은 교사의 능력정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추상 지도를 조형 요소와 원리에 따라 지도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 자료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어려운 현실이다.

추상화란 흔히 지도하기 쉬운 그림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배경에서 분석해 본 것처럼 추상의 본질과 그 내면 세계에 담겨 있는 작가의 조형 요소와 원리의 표현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물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그 대상에서 얻은 이미지와 형태를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형태를 단순화시켜보거나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 보는 노력이 추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몬드리안은 그의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단순한 선으로 파악하고 구성적 질서를 가진 평면을 통해서 균형감을 보여주는 구성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몬드리안은 화면에 선과 면, 색채의 균형과 구성상의 원칙을 들어 수직과 수평의 기하학적 구성으로 새로운 추상화를 창조하였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학생 작품으로부터 나오는 각자의 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하나의 주제로 독립시켜 이론적으로 지도한다면 창의성에 동기를 부여해 주기보다는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형 요소와 원리는 암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감상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 2. 제 7차 교육과정과 추상미술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0)</sup>

### 1) 제 7차 교육과정의 분석

#### (1) 성격

19세기 후반, 학교 교육에 미술교육이 도입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미술교육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미술교육의 기능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요구와 미술 및 그 관련 학문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술교육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술교육이 하나의 교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미술을 도구적인 기능에 의해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산업 혁명 이후 기술의 개발과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디자이너나 공예가 같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었다. 이에 부응하여 직업 준비의 성격으로서 미술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미술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시대적 변화를 간과할 수 없기에 과거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현재의 문화를 건전하게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9세기 이후 계속되어 온 과학의 발달은 물질적인 면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 시켰고, 그에 따른 생활의 여유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로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학교 교육에 도입된 후 문화 교육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미술교육 역시 적극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

30)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미술, 교육부 고시 1997-15호 (서울 : 2001)

처럼 시대적·사회적 배경이나 민족성·역사성 등의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미술교육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셋째, 미술교육은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처럼 미술교육은 인성 교육적인 측면, 직업 교육적인 측면, 문화 교육적인 측면, 창조적 자기표현의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미술 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미술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 고등학교 10학년 수준에서 미술과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등학교 (10학년) 내용 범위와 수준

미적 체험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 미적 가치 발견
표현	의도한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 표현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가치를 판단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며 미술 문화를 존중하도록 한다.
	→ 비평적 판단

## 2) 목표

### (1) 목표 설정의 기준

미술교육의 이념과 성격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면서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다. 우선, 미술교육이 ‘미술에 의한 교육이나’, 에 따라서, 목표 설정은 크게 달라진다. 또, 이러한 설정이 명확할지라도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 중에서 어느 측면에 호소하느냐에 따라 그 목표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미술교육의 고유한 기능은 개성의 신장, 창조성의 육성, 감성적 인식 능력 육성, 시각적인 인지 능력 육성 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목표 달성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사회적 측면에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구, 학문이나 문화적 요구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2) 목표

제 7차 교육 과정의 미술과의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마쳤을 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한다.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발달의 제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포괄적 의미를 목표로 제시한다.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위의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미술과의 총괄 목표는 심동적 측면에서 표현 및 감상 능력, 인지적 측면인 창의성 정의적 측면인 정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술과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술과의 총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로서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내용 영역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위 목표이다.

-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하부 목표 ‘가’항은 ‘미적체험’과 관련 된 것으로서, 생활 속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되었다. 하부 목표 ‘나’항은 ‘표현’영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성을 존중하며 표현에 창의성이 발휘 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부 목표 ‘다’항은 ‘감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로의 발전, 이를 바탕으로 미술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 3) 내용

#### (1) 미적 체험

(가) 자연미와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다.

- ① 자연과 조형물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비교한다.
- ② 조형 요소와 원리의 활용에 관하여 토론한다.

(나) 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

다양한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하여 미술 문화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

- ①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한다.
- ② 미술의 문화적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토론한다.

#### (2) 표현

(가)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을 생각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조형적 질서를 나타낸다.
- ② 시각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생활 용품을 나타낸다.

③ 한글, 한자로 나타낸다.

(나)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주제와 목적, 재료에 알맞은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나타낸다.

② 여러 가지 서체로 쓰거나 새긴다.

(다)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비례, 구조, 균형, 변화, 통일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② 자형, 문자의 크기, 배자, 자법, 도법 등을 익혀서 특성을 살려 쓰거나 새긴다.

(라)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표현 의도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② 재료 및 표현 의도에 적합한 용구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 (3) 감상

(가)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① 감상 관점을 선정하고 활용한다.

②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나) 미술품 문화유산 이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②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관하여 이해한다.

## 2) 7차 교육과정 미술과 교수-학습 방향

현대에 이르러 미술 교과의 학습 지도 방법은 교사 중심의 수동적 교육이나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을 토대로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둔 6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과는 달리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의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보는 기본 관점의 전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교사 중심의 지도상의 유의점 제시에서 탈피하여 학생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을 강조하는 다양한 교수 전략, 개별·집단별 학습 활동, 협동학습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포함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술과의 경우 전통 미술에 관련된 지도를 강조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관한 이해와 활용에 관한 사항도 제시하고 있으며, 또 내용의 각 영역별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을 근거로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미술 교과는 학생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각자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존중하는 학습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흥미와 욕구, 표현 방법이나 기법, 재료의 선택 등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지도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미술교육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학습의 내용에 따라 알맞은 지도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

이 교사의 역할이다.

### (1)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 (가) 학습 지도 계획은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되도록 하며, 흥미, 발달 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나)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 행사나 계절 등을 고려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 (다)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 (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
- (마) ‘미적 체험’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① 현장 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적인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 ②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바) ‘표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① 다양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 ②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는 표현 활동 속에서 통합할 수 있다.
  - ③ 교육과정상의 내용에서 제시된 조형 요소와 원리는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정할 수 있다.
  - ④ 표현 재료와 용구는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 ⑤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⑥ ‘미적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⑦ 표현 활동 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사) ‘감상’ 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①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② 미술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④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⑤ ‘미적 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⑥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하도록 한다.

## (2) 미술과 수업의 학습지도 방법

### ① 교수-학습 계획

학습 영역에 배당된 시간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흥미나 관심,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학습과 관련짓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선행 지식, 경험, 관심 등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필요하다. 주제를 분석하여 수업 목표를 정하고 하위 활동 과정을 밝힌다. 수업 목표는 그 수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평가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화하는 것이 좋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및 용구들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준비물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다. 특히 학생이 수업 전에 조사, 관찰, 자료 수집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② 발상 및 구상

발상과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여 보게 하거나 미리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도와준다. 새로운 이미지를 구상하는 과정은 미술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어떤 유형이나 고정 관념, 제한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를 갖도록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③ 표현활동

아이디어가 형성되면 같은 주제라도 특수한 목적이 있는 수업을 제외하고는 표현 방법이나 기법, 재료 및 용구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습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도 조언을 해주고 비판적인 조언보다는 공감하는 자세로 지도한다. 학생 개개인을 관찰하여 재료와 용구의 준비 상황, 표현 방법의 계획,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등을 채점 기준에 의해 체크하며 평가를 한다.

## ④ 감상 및 평가

학생의 능동적인 사고, 참여 의식, 미적인 감동, 감각적인 느낌을 길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품의 특성과 인상적인 점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표현에 반영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작품의 다양한 특징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 등의 감상법을 도입한다.

### 3) 추상미술의 교수-학습 원리

추상미술은 고대인들의 동굴 벽화나 장신구 등에서 오래된 예술성을 볼 수 있듯이, 인간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미술은 감상과 창조의 예술로 나뉘고, 다시 창조활동은 몇 단계로 나뉜다.

먼저, 만들고 싶은 느낌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매우 희미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은 구상의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가 겉으로 나타내고 싶은 동기가 상상력을 자극해서,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세세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일이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 영감에 의해 자극을 받는데, 보통 영감은 쌓아 온 재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즉,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상과 전개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미술은 단순히 천재성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소질이 없다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다음 단계는 구상 단계에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희미한 상태에 있던 생각의 내용이 예술적 상상의 힘으로 다듬어져서 차츰 통일과 질서를 얻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학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원래 계획했던 작품이 이 과정에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는 완성의 단계이다. 마음속에서 가다듬어진 것이 어떤 물적 재료나 기법을 써서 밖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이루는 단계이다. 창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충동이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관찰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작품은 완성된다.

학생들의 추상표현에 대한 의미와 의욕을 높이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사와 교과서이다. 교과서에 실린 도판의 해설만 보고 학생들은 자칫 추상화는 묘사력 없이도 그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으로 단정 지어 버릴 수 있다.

사람들은 추상 작품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너무 쉽다거나,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쉽다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원들을 반복하여 그린다거나, 어떠한 형상도 파악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의 낙서 같은 표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도 그리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반면 어렵다는 것은 보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정작 작가가 표현하고자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또한 추상 표현의 새롭고 다양한 표현기법, 재료 활용이 다양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아 학생들이 추상화와 연관을 갖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추상 표현의 새롭고 다양한 표현기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을 알고 추상화와 연관 지어 이해를 돕고, 수업시간에 표현, 새로운 재료, 매체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추상화의 발생과 역사, 학생들의 추상 표현의 유형과 다양한 기법, 조형 요소 원리에 따른 기본적인 지도 방법, 작가에 따른 특성과 감상법, 평가관점, 풍부한 도판의 수록 등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주관에 따라 마구 표현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임하는 학습지도는 기초 추상 표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다.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추상미술의 시작에는 다음과 같이 과거의 미술의 눈에서 좀 더 새로이 미술을 바라보게 하는 다양한 안목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풍경을 실제와 닮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감정을 독창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추상이란 아

무렇게나 멋대로 쉽게 만들어 진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표현을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작가의 노력을 잘 설명해 주어야한다. 대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대, 축소하여 변형의 과정을 이야기해주며, 단순화에 대한 설명도 추상을 이해시키는 데 덧붙여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추상 작품을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러한 작업의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조형 활동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Ⅲ. 추상미술 모듬 프로젝트

#### 1. 모듬 프로젝트 학습

##### 1) 모듬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

프로젝트 학습이란 한 그룹, 또는 전 학급의 학생이나 개별 학생이 수행하는 장기간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말한다. 즉, 소주제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프로젝트 학습은 미적 체험이 본질적으로 표현과 감상 영역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예술적 창작의 경험 속에서 미적 체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의 적용이다.

프로젝트 학습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생기게 되었는데, 1920년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정의의 혼란을 피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스티븐슨은 네 가지 기준을 들어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리려 하였다.

① 추리력에 중점을 두는가, 기억력에 중점을 두는가, ② 행위를 통하여 완성시키는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③ 학습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인위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④ 생활문제를 선행시키는가, 이미 이루어진 고정된 지식을 선행시키는가와 같은 기준 가운데 ‘자연적인 조건 밑에서 완성되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의 행위’라고 결론지음으로써 그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sup>31)</sup>

---

31) 박상호 외, 「최신 교육방법·교육공학」 (서울 : 집문당, 2003), p.132

## 2) 모둠 프로젝트 학습의 필요성

모둠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계획을 세워서 흥미나 동기를 갖고 창의적인 학습의 효과를 거두려는 현대적인 학습 지도의 한 방법이다. 모둠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현장 적용 연구는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교사에게 학습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좋은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학생들이 흥미 있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입시 경쟁에 짓눌리게 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3) 모둠 프로젝트 학습의 단계

### [변형시키는 즐거움]

#### (1) 목적설정

모듬원을 중심으로 산, 나무, 의자 등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교사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위해 설정되는 목적이 학생들의 흥미에 맞고,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나 수업의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모듬별 주제를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 (2) 계획수립

이 단계에서는 모둠원이 토의하고 정한 주제물을 사실적 형태로 개인작품 발상을 그려본다. 발상을 모아 감상하고 협동 추상화의 방향을 토론한다. 교사는 발상을 기초로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내용과 그 전개 과정의 순서를 확인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특징을 생략 강조하여 스케치하도록 지도한다.

어떤 학습이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모둠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계획수립의 단계가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이다.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3) 실행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므로 결과보다 세워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다. 학생들은 목적 설정과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최소한의 형태와 색으로 주제를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와 재료를 활용하면서 점, 선, 면, 색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도록 지도한다.

## (4) 평가

교사는 모둠별 작품을 칠판에 게시하고, 모둠대표는 완성된 작품의 특징, 장·단점을 발표한다. 발표자는 큰소리로 발표하도록 하고 정숙한 분위기에 서로의 작품 발표 내용을 경청한다.

학생들 자신이 평가와 교사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구상과 추상의 특성과 제작 방법을 학습하고, 서로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발상과 추상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추상화의 접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한다. 이때에 교사는 일방적인 평가 태도를 피하고 적절한 조언을 통해 아동들 자신이 자기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추상화의 뜻과 몬드리안의 특성을 정리하고, 추상 표현, 감상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 2. 교수-학습 프로그램

추상미술과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다음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고안되었다.

첫째, 현대미술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감상하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감상과 비평 활동은 우선 학생들이 쉽게 추상표현에 접근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설명으로 감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다음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교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서의 수업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미술작품 감상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표현활동을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모둠으로 나누어 주제를 제시하여 그 주제에 대해 발상하여 모둠 안에서 토론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이것은 감상한 미술작품의 주제나 표현 방법을 따라해 보는 모방적인 표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작품 감상활동이 감상과 표현의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표현활동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셋째,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쉽게 추상 표현에 접할 수 있도록 중심 조형 요소, 점, 선, 면, 색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어떻게 조형의 요소와 원리가 자연에서 파악되고 표현되는지 몬드리안의 작품을 통해 추상표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미술과 교육 목표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 (1) 생활에서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2) 느낌과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 2) 단원명

- (1) 대단원 : 변형시키는 즐거움
- (2) 소단원 : 추상과 상상의 세계

### 3) 단원 설정의 이유

추상미술은 20세기 현대 미술의 주된 경향 중 하나이다. 수많은 미술가들이 추상회화와 추상 조각을 제작했으며 그 표현 양식도 표현주의에서 미니멀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비대상적’, 또는 ‘비재현적’으

로 정의되는 추상미술은 주제가 숨겨져 표현되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추상미술에 영향을 미친 다른 미술 사조 및 경향을 알아보고 구상과 추상 작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을 열어주고자 한다. 또한 자연물을 수직, 수평선과 3원색, 무채색으로 변형시킨 몬드리안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 단원의 목표

- (1) 추상미술의 개념 및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2) 구상과 비재현적인 추상 작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형태의 변형’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다.
- (3) 여러 가지 체험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현대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

5) 단원의 지도 계획

<표 2> 변형시키는 즐거움 지도 계획

대단원	소단원	차시	학습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변형 시키는 즐거움	추상과 상상의 세계	1/3	조형 요소의 원리를 응용한 창의적인 사고 를 발견하고 대상을 추상화시키는 표현 방 법을 이해한다. *칸딘스키, 몬드리안 의 추상	추상화의 단순화나 초현실주의 등의 미술 사적인 감상 내용을 정리하여 다양한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일상의 사물로 다양한 모양을	2/3	생활주변의 물체에 서 새로운 의미와 형 태를 발견해 본다. *요셉보이스, 유형과 무형	다양한 재료나 용구 의 사용 방법을 지도 하여 작품 제작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술품을 이용한 미술품	3/3	서로의 작품을 감상 하며 제작 과정에서 이용된 여러 가지 표 현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미술품을 창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갖는다. *설치-공간설치 자연-대지미술 공공미술 건축	창의력 없이 기성 작품을 모방하는 수준 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나 응용할 수 있는 기 법 등을 다양한 예시 작품 설명을 통하여 제시해 준다.

## 6) 본시 학습 지도 계획

본 단원에서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 볼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다양한 기법들을 제시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 추상적 표현과 상상의 세계를 보다 쉽고 자유롭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으로 대상의 특징을 살려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 7) 추상과 상상의 세계 지도

- (1) 참고 작품 조형 요소와 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찾아보고 이해한다.
- (2) 사물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 (3) 대상을 추상화시키는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4) 비현실적인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5) 추상화 및 상상화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앞서 배운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본다.
- (6)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하여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해 본다.

## 8) 본시 학습 지도안

<표 3> 1/3 차시 추상과 상상의 세계 학습 지도안

<b>단원명</b>		변형시키는 즐거움 - 추상과 상상의 세계			
<b>일시</b>		2004년 4월 26 일 (월) 3교시	<b>장소</b>	1학년 3반 교실	
<b>대상</b>		1학년 3반 34명	<b>수업형태</b>	실기수업	
<b>학습목표</b>		1.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추상과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2.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현대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			
<b>학습자료</b>		교사 : 예시작품, 컴퓨터, TV, PPT 학생 : 교과서, 캔트지8절, 색상지, 채색도구, 매직, 사인펜, 30cm자, 풀, 칼 등			
<b>단계</b>	<b>지도 내용</b>	<b>교수-학습 활동</b>		<b>지도상의 유의점</b>	
		<b>교사 활동</b>	<b>학생 활동</b>		<b>시간</b>
도입	전시 학습 확인	*인사, 출석 확인 *전시 학습 활동 확인 -자화상 *구상과 추상의 뜻을 설명한다.	*바른 자세로 인사 *전시 학습을 확인한다.	*구상과 추상의 뜻을 확인한다.	5"
	학습 목표 제시	*본시 학습 주제 발표 -추상과 상상의 세계 *학습 목표 제시 1. 몬드리안 작품을 통해 조형 요소를 알수 있다. 2.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추상 표현을 할수 있다.	*학습 주제를 인식한다. *학습목표를 읽고 인지한다.		

단 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시 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동기 유발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형시킨 화가 몬드 리안을 소개한다. *몬드리안 작품을 보 여준다. - 붉은 나무	*화가 몬드리안을 알 수 있다. *몬드리안 작품을 감 상한다.		
전개	몬드 리안 이해	*몬드리안 작품을 보 여준다. - 나무 연작  *점→선→면 *선의 다양한 성격, 종류에 대해 설명한 다. *선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난) *선과 선 사이의 공간 이 면이 된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느낌, 특징을 발표한다. *조형 요소인 점, 선, 면을 이해한다. *선의 다양한 성격, 종류를 안다.  *선과 면에 대해서 이 해한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통 해 추상미술 에 쉽게 접 근할 수 있 도록 한다.	30"
	작품 감상	*몬드리안 작품과 몬 드리안의 작품을 기 초로 표현한 학생 예 시작을 감상시킨다.	*타 학생의 예시작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 는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시 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전개	실기 지도	<p>*모둠별 주제를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나무, 산, 의자 등)</p> <p>*모둠별 발상을 그리도록 지도한다.</p> <p>*발상을 기초로 모듬원의 의견을 모아 특징을 생략 강조하여 스케치하도록 지도한다.</p> <p>*선, 면, 색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도록 지도한다.</p> <p>*모듬별로 토론하여 협동 작품을 제작하도록 한다.</p>	<p>*모듬별로 주제를 정한다.</p> <p>*모듬에서 정한 주제를 물을 사실적 형태로 개인작품 발상을 그려본다.</p> <p>*모듬원의 발상을 모아 감상하고 협동 추상화의 방향을 토론한다.</p> <p>*종이에 특징을 생략, 단순화하여 추상화하여 스케치한다.</p> <p>*최소한의 형태와 색으로 주제를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p> <p>*다양한 재료로 효과적인 표현을 한다.</p>	<p>*예시작품의 모방이 되지 않도록 창의성을 강조한다.</p> <p>*함께 토론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모듬 학습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p>	

단 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시 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전개	실기 지도	*순회 지도하여 강조 할 점 및 주의점을 지도한다.	*모듬 대표는 완성작 의 특징, 장단점을 정리한다. - 발표자 는 큰소리로 발표하 도록 한다.  *정숙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작품 발표 내 용을 경청한다.		
정리	내용 정리	*모듬별 작품을 칠판 에 게시한다. (1조~6조)  *모듬별 발표한다. -발상, 추상작품  *모듬 대표가 작품의 특징, 재미있었던 점 을 발표한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구상과 추상의 특성 과 제작 방법을 안다.  *서로의 작품을 평가 한다.  *발상과 완성작을 비교해 본다.  *추상화의 접근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자신 감을 갖는다.  *추상화를 통해 현대 미술을 이해한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 하고 평가한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구 상에서 추상 으로 변화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 록 한다.	15 "

단 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시 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정리	형성 평가	<p>1. 그리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 점, 선, 면, 색 등으로 화면의 질서와 미를 표현하는 그림은?</p> <p>2. 선, 면의 분할과 색채의 조화를 통하여 추상화를 표현한 네덜란드의 화가는?</p> <p>*추상화의 뜻과 몬드리안의 특성을 정리해 준다.</p> <p>*추상 표현, 감상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 준다.</p>	<p>*문제를 같이 읽고 1명이 대답한다.</p>		
	차시 예고	<p>*백타이 디자인에서 구상, 추상적으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백타이를 디자인한다.</p> <p>*준비물을 안내한다. (캔트지, 연필, 지우개)</p> <p>*주변 정리를 지도한다.</p>	<p>*주변 정리를 한다.</p> <p>*준비물을 메모한다.</p>		

## 9) 형성 평가

- (1) 그리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 점, 선, 면, 색 등으로 화면의 질서와 미를 표현하는 그림은?
- (2) 선, 면의 분할과 색채의 조화를 통하여 추상화를 표현한 네덜란드의 화가는?

## 10) 학생작품 및 평가

모둠장이 나와서 그림을 전체 학생들에게 작품을 제시한 후 그 작품은 무엇을 그렸고 어떤 느낌을 그린 것인지 생각하게 한 다음,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이때 다른 학생들은 모둠장의 다른 모듬의 추상화 과정의 설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면서 모듬의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해석, 평가를 함으로써 미적 안목을 기르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다른 사람의 미술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도 길러준다. 학생들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표현 의도를 정리하게 되며,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미술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지며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감상하게 된다.

학생들의 작품에서는 사실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어 표현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았다. 학생들은 변형된 이미지를 찾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 <표4> 학생작품 평가

그림 23, 24	면봉과 물감을 사용하여 점으로 노을이 지는 바다를 표현하였다. 다른 모둠과 달리 독창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모둠원이 협동하여 재료용구도 알맞게 선택하여 작품에 잘 표현하였다
[모둠 1] 바다	
그림 25, 26	나무를 버섯 모양으로 그리고, 색지위에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채색하였다. 모둠원의 내적인 감정을 추상화하였다.
[모둠 2] 나무	
그림 27, 28	가는 선으로 길게 나무를 표현하였고, 가지와 가지 사이의 겹치는 면은 사인펜으로 채색하였다. 모둠4는 추상 과정을 2개 제작하였는데 또 다른 하나는 주워온 나뭇가지를 색지 위에 풀라쥬로 표현하였다. 재료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재미있게 표현되었지만 보존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 독창성 역시 중요하지만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해야겠다.
[모둠 3] 나무	
그림 29, 30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순간을 표현하였다. 흰 종이를 뚫고, 뒷면에 색면을 오려 붙이고 크레용으로 색칠하였다. 아래 빨강 색면이 사과이다. 나무는 항상 땅에서 자라지만 모둠5에서 표현한 사과나무는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모둠 4] 나무	
그림 31, 32	교실 창밖 화단에 잘 다듬어진 나무를 보고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의 색면을 검정 색지에 오려 붙였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색면을 활용하여 간결하면서도 조화롭게 잘 배치한 작품이다.
[모둠 5] 나무	
그림 33, 34	재료를 사인펜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쉽지만, 나무가 자라나는 방향으로 가늘고 긴 선으로 나무를 표현하였다. 공간을 살리고, 여백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한붓그리기의 표현이 간결하고, 함축적이다.
[모둠 6] 나무	

그림 35, 36 [모듬 7] 나무	주제는 의인화하여 선으로, 배경은 색면으로 표현하였다. 배경을 변화 있게 여러 가지 색으로 정교하게 채색하였고, 면 분할이 자유롭다. 더불어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그림 37, 38 [모듬 8] 나무	발상에서 대상을 연필로 자세하게 관찰하여 스케치하였다. 마름모 안에 면을 분할하여 小자와 山자를 그려 넣어 표현하였다. 거침없는 나무의 표현이 단조롭게 잘 표현되었다.
그림 39, 40 [모듬9] 나무	나무를 나뭇잎 모양으로 그렸다. 선으로서 면을 채우기도 하고 잎맥의 선에 사인펜으로 연장선을 그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41, 42 [모듬10] 나무	두 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있다. 오른쪽 작품에서도 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혼자 살 수 없듯 서로 돕고 사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43, 44 [모듬11] 나무	나무의 밑 등지부분만 그리고 이것을 나이트를 연상시키게 하는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나무의 전체적인 형상이 아닌 부분만으로 표현한 발상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림 45, 46 [모듬12] 나무	가는 선을 여러 번 겹침으로써 굵은 선이 되고. 면을 이루고 나무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림 47, 48 [모듬13] 나무	짧고 간결한 선과 선이 교차하고 그 교차한 선이 연결됨으로써 나무의 모습이 이루어졌다.
그림 49, 50 [모듬14] 나무	직선과 원으로 표현하였다. 아주 간결하게 나무를 표현하였고, 보라색과 하늘색의 조화가 신선하다.
그림 51, 52 [모듬15] 나무	발상은 흰색 종이에 검정색으로, 추상은 검정 색지를 선택하여 흰색 분필로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검정 색지에 분필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53, 54 [모듬16] 나무	울창한 나뭇잎을 빨강 색지에 검정색 직선으로 강렬하고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55, 56 [모듬17] 산	여러 가지 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자세하게 보면 점의 밀집된 표현으로 작은 산을 이루고 있다. 밀집된 표현이 조금은 뚜렷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림 57, 58 [모듬18] 산	사계절의 산을 한 화면에 표현하였다. 봄의 따듯함은 크레용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으로, 여름은 초록색 면으로 채색하였고, 가을은 노랑, 빨강의 색면으로, 흰색은 배경임과 동시에 겨울을 표현하기 위해 종이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았다.
그림 59, 60 [모듬19] 산	파스텔을 사용하여 은은하게 표현한 반면 추상 작품에서는 사인펜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61, 62 [모듬20] 산	사인펜으로 높고 힘준한 산맥을 힘차게 채색하였고, 속도감이 느껴진다. 山자를 이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선의 두께를 적절히 조절한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림 63, 64 [모듬21] 산	안정적인 선의 표현은 간결하면서도 대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형태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선의 울동감이 인상적이다.
그림 65, 66 [모듬22] 산	발상을 동화처럼 표현했지만 노랑 색지에 검정색 선으로 강하게 나선형으로 표현하였고, 나뭇가지들을 연결하여 화면 전체를 조화 있게 표현하였다.
그림 67, 68 [모듬23] 의자	대상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나선형의 선으로 공간 효과를 나타내고, 노란색 직선으로 분위기를 밝게 표현하였다.

그림 69, 70 [모듬24] 의자	자유로운 선 분할로 주변 환경을 표현하였다. 자연스러운 발상을 통해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표현했다.
그림 71, 72 [모듬25] 의자	혼잡해 보이는 것을 감안해서 대상을 선과 색면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비례를 다양하게 나누고 색을 강하게 선택하여 채색하여 작품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그림 73, 74 [그림26] 의자	종이는 평면이지만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종이를 접선을 따라 접었다. 접으면 앉을 수 있는 의자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가장 장난이 심한 모듬이어서 수업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발상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
그림 75, 76 [그림27] 의자	선의 방향을 다르게 함으로써 면을 이루고 면과 면을 연결하면 대상이 의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추상표현에서 약간 기울어진 의자의 표현이 재미있다.
그림 77, 78 [그림28] 의자	인체공학적인 의자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 단계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유 곡선을 사용하여 변화와 비례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림 79, 80 [그림29] 의자	먼저 반복된 선을 긋고 면을 채색한 뒤, 곡선을 사용하여 의자를 표현하였다. 반복되는 소용돌이 선이 면을 이루고 밝은 노랑을 선택함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림 81, 82 [그림30] 의자	편안한 안락의자를 추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변기가 떠올랐다고 한다. 의자를 변기 모양으로 변형시키고 선으로 면을 채색하였다. 재미있는 발상 표현이다.

평가는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의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의도에 따라 놓이는 위치와 공간 구성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며 여러 개 반복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품의 의미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무엇을 표현하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할 수도 있지만 작품이 주는 많은 의미를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미술활동이 이루어졌다. 모둠 프로젝트 수업은 자기 스스로 다음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교사와 학생의 피드백을 통한 수업진행이 미술적인 활동을 연결해 주었다.

모둠 프로젝트 수업은 추상미술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친구의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학생의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미술교과에서의 모둠 프로젝트 수업은 사회성 발달과 표현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일 뿐만 아니라, 표현 활동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우리는 매일 매일을 인터넷과 마스크의 정보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주변의 일상적인 것들을 자세히 바라볼 만한 만화나 영화, 그리고 가상현실의 컴퓨터 게임을 통해 실제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미있는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형태가 일그러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순식간에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발한 상상들은 특히 미술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미술의 이해를 위한 현장 적용 연구」라는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감상 자료와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추상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현장 적용연구이다. 모둠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미적활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추상미술의 참고 작품 감상은 ICT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표현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과 흥미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둘째, 조형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추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자연발상으로 확산적 사고로 인한 창의력 신장에 효과적이었다.

셋째, 추상화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추상화에서 어떻게 그림을 진행하는지 모르던 학생들이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현대미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의 표현으로 추상화에 대한 안목과 감상 능력을 높여주었다.

넷째, 모둠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여

러 측면에서 생각해봄으로써,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생각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데 효율적이었다.

다섯째, 모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모둠 구성원과 함께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학습태도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모둠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여섯째, 추상미술에 대한 감상, 표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사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고, 더 이상 구체적인 조작에 얽매이지 않고 추상미술작품을 비평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높여주었다.

일곱째, 교육과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을 통해 미술과 생활이 추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위와 같은 결론은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추상미술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학생에게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관에 의하여 해석된 추상미술과 객관성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긴장감이다. 추상미술에 관한 미적체험 활동이 추상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길러 주었고 비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느낌 표현에 있어 교사의 과도한 참견을 자제함으로써 학생의 자유로운 표현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끝으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적용한 추상미술 제작과정 및 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추상미술의 이해를 돕고 추상표현력 향상의 효과를 얻었다. 현장에서 추상표현 지도방법을 모색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고숙자 외,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서울 : 예경, 2003)
-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서울 : 미진사, 1992)
- 김성숙 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서울 : 학지사, 2003)
-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서울 : 한길아트, 1999)
-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 일지사, 1994)
- 월간미술취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월간미술, 1999)
-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서울 : 예경, 1993)
-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 외 역, 「현대미술의 개념」, (서울 : 문예출판사, 1994)
- 멜구딩, 정무정 역, 「추상미술」, (서울 : 열화당, 2003)
- E.H.곰브리치, 백승길 외 역, 「서양미술사」, (서울 : 예경, 1997)
- 장뤽다발, 홍승혜 역, 「추상미술의 역사」, (서울 : 미진사, 1990)
-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 열화당, 2000)
-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서울 : 열화당, 2000)
-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 예경, 2000)
- 
- 김기택, 「중학교 미술에서 점, 선, 면을 통한 추상회화의 지도방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김소연,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추상표현 지도에 관한 연구」, (칭각의 시각화를 통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김정, 「조형요소와 원리를 적용한 추상화 표현력 신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나현정, 「추상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방경숙, 「추상회화의 구성주의적 접근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차학습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염선이, 「초등미술교육에서 추상표현력 신장 방안」,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정지연,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을 통한 추상 미술의 효율적 지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최윤정, 「미술 감상 지도 연구 (초등학교 1,2학년, 조형요소 감상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미술」, 교육부 고시 1997-15호 (서울 : 2001)
- 홍선표 외,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서울 : 시공사, 2002)
- 인터넷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02325>  
<http://100.naver.com/100.php?id=98241>  
<http://100.naver.com/100.php?id=20853>  
<http://100.naver.com/100.php?id=68846>  
<http://100.naver.com/100.php?id=716742>  
<http://100.naver.com/100.php?id=212058>

## **Abstract**

Today art education tend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appreciation and critical activities as well as creative and representative activities. This tendency implies that school art education aims at cultivating a cultured person having an aesthetic eye, not a professional artist. So to speak, it is important to learn manners of being familiar with art in everyday life, feeling aesthetic value of, understanding and representing a beautiful t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students correctly understand abstract art among various spheres of art, seek an effective teaching device for cultivating a basic eye for representation and appreciation on the basis of such understanding, and propose a detailed teaching-learning program.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concentrated on literature studies, the 7th educational course, a guidebook of the 7th educational course and case studies through a class. In view of the contents of the 7th educational course whose expression sphere increased, I though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earn abstract representation in order to freely represent confidence in expression and one's feeling and sense.

Accordingly, in this study, as a detailed guidance device for that, I proposed materials for appreciating a work of art and a process of manufacturing an abstract painting as ICT material, and developed

a teaching device by small-group learning and developed it to an actual education.

The detailed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II-1 Concept and principle of abstract art, I described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abstract art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utilized formative elements related to those for promoting understanding abstract art. Also, I proposed materials able to cultivate the basic eye for understanding modern art by comparing and analyzing representation features of conception and abstract paintings through examination of the trend of art which influenced abstract art.

To speak in detail, I analyzed works of art by Piet Mondrian which changed natural things into the vertical line, the horizontal line, three primary colors and achromatic colors, trying to make creative works of art with free thought on the basis of such analysis.

In II-2 The 7th educational course and abstract art, I realized the necessity to apply the formative element and principle to abstraction through analysis of the 7th art education course, proposing new and various methods of abstract representation for increasing a desire for abstract representation and creative expression ability.

In III-1 Small-group project learning,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small-group project learning and had a class designed on the subject of [Pleasure changing something].

In III-2 Teaching-learning program, I selected the important

problem proposed in modern art as learning contents, concentrated on promotion of appreciation activities based on this problem, and, in the part of explaining representation activities of students in relation to appreciation activities of works of art, proposed a subject by small-group so that a solution could be found through an idea and discussion about such subject. Especially, in order to induce the interest of students and for they to easily have an access to abstract representation, I developed a model for central formative elements - point, line, side and color - and proposed them to student.

With regard to appreciation of works of abstract art, I induced the interest in and motivation for the representative activities of students using ICT, increased abstract expression abilit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formative elements, and attempted to increase creativity through expansive thought. Through case studies, students came to have new viewpoints, able to raise their eyes for and ability to appreciate abstract art. Also, small-group project class not only was helpful to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advancement in expression power, but also gave confidence in representing abstract art.

Like thi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desirable teaching methods so that senior high school students may understand abstract art and freely represent abstract art utilizing the formative elements and principles of art. I wish this study will be a good reference in relation to teaching methods of abstract representation.